



남아프리카 사회주의 논쟁

「공공산당선언」 발간 1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회주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주역은 남아프리카공산당(이하 SACP)이다. 「공산당선언」의 핵심 내용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SACP 안에서 '선언'의 무엇을 폐기하고, 무엇을 계승할 지에 대한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듯하다.

1990년 SACP가 40년 동안의 지하 활동을 마감하고 합법화되었을 때, 소비에트 전영은 급속히 와해되고 있었다. 합법화된 SACP는 끈끈한 결속력을 지닌, 소수 전위 중심의 무장투쟁 조직이었다. 당시 당원 수는 수백 명을 넘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지금은 어당이 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노동조합, 그리고 대중운동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큰 영향력을 미쳤다. 1990년 소비에트 전영이 무너진 이후, 핵심활동가 절반이 당을 떠났다. 1991년 열린 SACP 제8차 전당대회에서

는 SACP의 노선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고, 이데올로기 분열이 일어났다. 대중정당이나 전위정당이나를 둘러싸고 대립점이 형성되었고, 그 결론은 '대중·전위' 정당이라는 기묘한 개념으로 절충되었다.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소련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사회주의 운동진영이 철저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몇몇 당원들은 "개량주의로의 부항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SACP 지도부가 제8차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제안한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향하여"는 대다수 대의원들에 의해 거부당했고, '사회민주주의'와 '유로공산주의'라는 한쪽의 비난에 대해 반대쪽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스탈린주의"라고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995년 4월 열린 제9차 전당대회 이후 SACP는 중요한 전략 변화를 모색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슬로건에서 잘

이 그림은 남아프리카 3대동맹 조직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남아프리카공산당(SACP)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의 상징마크이다.



나타난다. 이전까지 사회주의 건설에 앞서 인종차별 철폐와 민주주의 쟁취가 필요했다면, 남아프리카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지금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혁명(NDR)의 시기가 지나고 혁명의 두 번째 단계인 사회주의 건설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SACP의 판단이다. (남아프리카 최대 노총이자, SACP와 함께 ANC가 주도하는 3자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 역시 작년 9월 열린 제6차 전국총회에서 "지금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SACP의 노선 전환은 벌써부터 현실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반동 세력이 아직도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강령의 '선언'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반민주 잔재를 척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1단계 과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뜻한다는 주장이 집권여당이 자 3자동맹 주도 세력인 ANC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SACP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은 의료·주택·교육의 탈상품화, 시장의 힘 축소, 사회보장제도 확립, 소유권의 '사회화'이며, 이것은 '정통' 사회주의 노선이라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SACP는 오는 7월 열릴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강령과 행동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자본주의 복귀,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후퇴, 제3세계 진보진영의 미숙과 세계 자본주의의 승승장구라는 상황에서 SACP가 마련할 사회주의 실천강령이 이전에 개량주의라 매도당했던 프로그램을 크게 벗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유가 '의지의 부족'보다는 '현실의 제약'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ILO 총회 열려 - 어린이 착취 근절 선언

국 제노동기구(ILO) 1998년 연차 총회가 2주 일정으로 6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이번 총회의 최대 안건은 '어린이 노동 보호 및 어린이 착취 근절'이다.

ILO 총회 개최에 맞춰 세계 어린이 노

동자 대표들은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시작돼 세계 62개국을 거친 「어린이 노동을 반대하는 지구 행진(global march)」을 마치고 제네바에 도착했다.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시작된 「지구 행진」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국제노동기구(ILO)가 후원

했으며, 전세계 7백여 단체가 참가했다.

ILO가 5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어린이의 25%가 시간제 또는 상근제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중 2/3는 위험한 조건에 처해 있다. 5~14세의 개발도상국 어린이 2억 5천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이번 총회에서 ILO는 경제 착취와 함께 어린이에 대한 성 착취 근절에 관한 협약도 채택한다. ILO가 총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서부 아프리카에서 어린이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시아 어린이 1백만여 명이 매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ILO는 어린이 매춘이 날



전세계 10억명의 어린이 가운데 2억5천만명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61%(1억5천3백만 명), 아프리카 32%(8천만 명), 라틴 아메리카 7%(1천7백50만 명)이다. 어린이들의 노동 분야는 농업, 건설업, 가사, 광업, 도자기 및 유리공장, 성냥공장, 축구공 공장, 의류업으로 다양하며 심지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심해에 잠수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국제축구협회(FIFA) 공인 축구공도 어린이들이 만든 것이고, 축구공 공장의 어린이 착취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다.)

INSEANAL

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출신 어린이를 거래하는 국제 조직망이 현재 최소한 5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이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선진국에도 존재하며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동구에도 다시 등장하

고 있다.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살충제 중독이나 구타, 성폭행 따위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여자 어린이가 남자보다 작업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등 중앙 아메리카에서 갓 넘어온 이민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약 2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하루 2달러(3천원)를 받으며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국제 사회에 호소한다.◆